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날선 공방

도-의회, 지난 5일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서 대립각 "설립 늦추면 도민 피해" VS "수지개선 등 과대포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적정성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전을 펼쳤다.

지난 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 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시설공단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도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과대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제주의 현안 중 가장 심각한 쓰레기, 하수처리, 주차문제 등 회피 업무들을 모두 공단이 맡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된 도민공감대 형성 미흡, 인력운영계획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설립내용이 우호적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비율이 50% 조금 넘고, 주민복지증진기여 기대도 42%로 낮은 수치"라며 도민공감대 형성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 면수 증가 및 향후 인력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고, 현행 일반직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수지개선효과가 '거품'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용역) 신뢰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 현안에 맞는지, 현실적으로 감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인력문제의 경우 2020년 533명에서 출발해 22년 300명으로 38% 감축을 전제로 했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노조가 반발해 감축안되면 추가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전직 부분이 민감하다"면서도 "근무조건과 정년을 무장하면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향상시켜줄 예

정이다. 그러면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또 "개인적으로 조례가 통과 안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단 설립이 늦어질수록 도민에게 피해가 간다. 하수, 쓰레기, 주차는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해야 도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제주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이번 7월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과 관련 특별 의혹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공고를 통했지만 한 업체로부터 129억여원을 들여 한꺼번에 80호(5동)를 매입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은지기자

제주 속 '생태자산' 함께 찾아 지킨다

국립생태원, 정책 연구회 꽃자왈 등 활용방안 모색

제주도민이 제주 생태자산 100개를 선정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7일 제주시에 있는 다원호텔에서 지역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제주 생태자산 100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생태서비스 평가 정책 연구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에는 제주꽃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올레,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의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한다. 지역 생태자산 발굴과 평가, 활용방안을 찾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7일 제주시 다원호텔에서 열린 국립생태원의 '생태서비스 평가 정책 연구회'에서 지역주민이 선정한 제주 생태자산 100개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도 생태자산은 ▷무릉꽃자왈 등 꽃자왈 12개 ▷다랑쉬오름 등 오름 35개 ▷합덕사우뚱해변 등 해변 18개 ▷수월봉 등 지질명소 12개 ▷남생이못 등 습지 8개 ▷삼다수길 등 기타 15개 등 총 100개로 구성됐다. 평가 분야별 생태자산 순위를 보면 경관가치와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생태자산은 ▷성산일출봉 ▷도두봉 ▷금능오름원해변 ▷월정리해변 ▷대포주상절리 순이었다.

제주올레의 '올레지기' 이서형씨는 "개발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깊다"면서도 "앞으로는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역 위주로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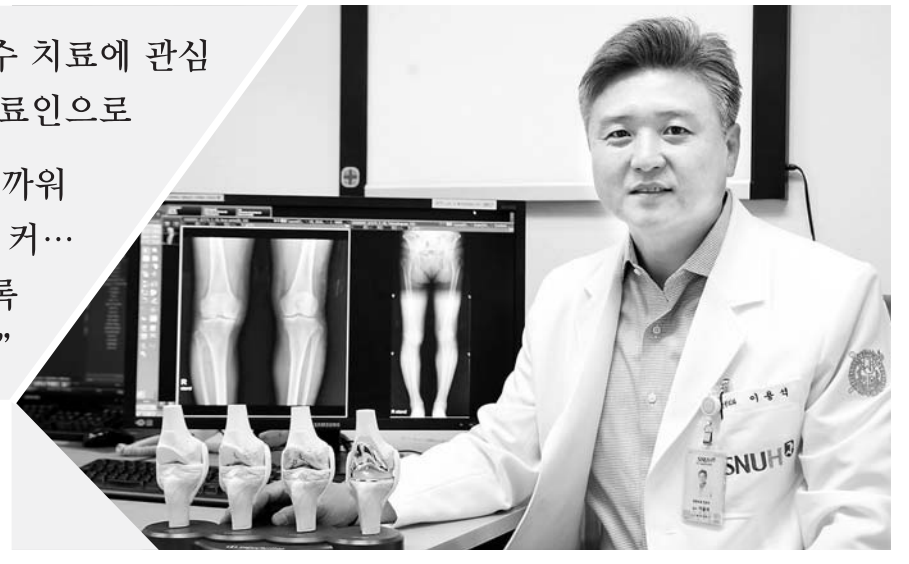
앞으로 국립생태원은 이번 환경활동가들의 평가 외에도 일반시민 대상 인식 조사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오는 8월쯤 '제주도 생태자산' 민간참여지도로도 제작된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요망진 제주사람 (4) 이용석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제주 환자 불이익 없는 치료 시스템을"

운동 좋아한 유년시절... 선수 치료에 관심 국내 무릎관절 연구 선도 의료인으로 "잘못된 의학 정보 피해 안따까워 정확히 조언할 수 있어 보람 커... 제주지역 환자 불편함 없도록 치료 연결 시스템 구축 기여"



제주 출신 이용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45·사진)는 국내 무릎관절 분야 연구와 진료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며 의료계에서 명의로 인정받고 있는 의료인이다.

이 교수는 서귀포시 효동동 출신으로 효동초·중학교와 오현고(40회)를 거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활약 중이다.

무릎관절 질환은 가장 많은 환자 수가 있는 분야다. 그가 집도하는 수술만 한 달에 70-80건. 수술 분야는 운동이나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인대 연골 손상에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관절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 교수는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년시절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고 운동선수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전공을 정형외과로, 무릎 슬관절 분야를 세부전공으로 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제주 출신이면서 그의 스승이기도 했던 국내 스포츠 의학의 선구자 고 하권 의 박사의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프로 농구팀 팀닥터를 맡고 있으며 대한스포츠학회 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경기가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

고, 이를 연구에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분야의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외 저널에 170여 편 이상의 연구 실적을 보유, 미국 마르퀴스 후즈후, 미국 인명정보기관 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 인명센터 IBC 등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 슬관절학회에서는 총무로 활동 중이다.

"무릎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당수가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노년층이죠. 무릎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은 아니어서 비수술적 방법이나 수술적 방법 모두 통증을 완화 시킬 수는 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무릎 관절을 돌려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을 조절하고, 꾸준히 평소대로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운동을 하며 약화를 막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최근에는 시간을 쪼개 언론에 무릎 건강 정보도 적극 알리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의학 정보

들의 홍수 속에 정확한 의학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이다.

"제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게 가장 보람됩니다. 필요 없는 과잉진료나, 정말 필요함에도 간과되는 치료 등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및 여러 광고의 발달로 잘못된 지식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제하는 칼럼을 종종 써왔습니다."

그는 제주지역 환자들이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치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 제주에서의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향후 제주지역 의료기관과 주기적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방문 수술도 하고, 지역 의사 집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환자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주출신으로서 고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오늘 농업·농촌 심포지엄

제주연구원 8일부터 9일까지 한국 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 심포지엄은 2019 한국 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 불룸1(2층)에

서 열린다.

첫날인 8일은 오영훈 국회의원의 초청강연 '농정 대전환과 제주 농업·농촌의 미래'를 시작으로 이명현 인천대 교수가 '농업재정혁신과 제주 농정의 시범자치', 고성보 제주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 홍승지 충남대 교수, 조재환 부산대 교수는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9일에는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전망과 대응',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 공익형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방안',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농업 노동의 특징과 미래를 위한 대응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수출기업에게 청년인력 취업자원을 위한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출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 사업기간: 2019. 1. 1 ~ 2019. 12. 31
-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18~39세의 미취업자(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 자세한 채용안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직영인력 제공 및 인건비 지원: 최대 2년(재정일 ~ 2020. 12. 31) + 계속 고용시 추가 지원(1년)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결정 예정
 - 지원 금액: 직영 신규 채용 시 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 월 보수: 200만원 이상(보조 180만원, 기업차부담 20만원 이상)
 - 청년임금의 10% 및 4대 보험금은 기업부담임
 - 행정 시 등 지역 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는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년) 종료 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2.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신청

- 신청기간: 2019년 7월 26일까지 (-18:00)
- 신청방법: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업체 목록 확인 후 워크넷에 직접 입사지원신청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
- 신청자격
 - 연령기준: 만 18 ~ 39세(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에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시 참여 가능
 - 취업 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사업신청일 기준 실업기간이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출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 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 취업 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실업기간 상환없이 유출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취업지원사업(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여 약정기간 만료 후 퇴사한 자: 실업기간 상환없이 유출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3.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주컨트리구락부 (제주C.C) 기업회생 인가(M&A)에 동의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의 기업회생 사건 진행

제주cc 최대 담보채권자 한프에인씨유한회사가 2019. 3.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이 재판부에 의하여 이른바 P플랜(신속처리 절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초 위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원동의를서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회원보상비율의 타결

M&A회생사인 한프는 회원보상비율로 재판부 면전에서 입회금의 50%를 (현금20%즉시지급 + 20%3년3회분할지급 + 10%이용권지급)제시하였고 이 보상비율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여 현금30% 즉시지급 + 20% 이용권 지급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이용권도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 2019.7.20.까지 회생계획안(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동의를 양식과 함께 간략한 설명서를 우편송부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회원은 제주벤처마루 606호 운영위 임시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64-759-8091)

제주컨트리구락부 회원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대표 위원장 박근식 배상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제주의 수수께끼" 교육생 모집

— 신청기간 2019년 6월 24일(월) ~ 2019년 7월 12일(금) 까지

— 교육대상 제주를 알고싶은 도민이면 누구나!

— 교육내용

- 제주의 신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인문학
-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탐방
-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장 "소통·공감 토크"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jejumaeul.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759-7766

중국명문공립 하얼빈이공대학교 입학설명회

★ 중국어 HSK 등급없이 본과 입학

하얼빈 이공대학은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 성 하얼빈에 있는 공립 공업대학으로, 헤이룽장 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1950년대 초에 세워진 하얼빈 이공대학은 오늘날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경영학과, 인문학, 법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미국의 드로이 주립대학교, 퍼즈버그 대학교, 영국의 런던 대학교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제주대학교 등 10여개 국가 대학 및 연구소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일시: 2019년 7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제주시 서사로 20)

▶ 강사: 전하얼빈이공대학교 국제문화교육학원 한국학생입학교육 책임자 교수

▶ 추천학과: 대학원어과

◆ 하얼빈이공대학교 장점

- 중국어 집중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경쟁력 제고
- 예비과정 없이 4년제 본과 입학으로 유학기간 1년 이상 단축
- 수능성적이나 중국어 등급시험인 HSK등급 취득 없이 입학 가능
-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포함한 총 유학비용이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수준
- 중국 최고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하얼빈에 위치한 동북지역 최대 국립대학
- 철저한 학사관리를 자랑하는 중국교육부 선정 우수 명문대학교
- 중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기술사범 학생 편의시설과 환경

참가신청대상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생소지자로 학부,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

◆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제주 입학 대행처: 동남유학

☎ 064-745-3666, 010-2691-24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5층